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1.90원 상승한 1,218.70원에 마감

4일 달러-원 환율은 위험선호분위기에도 저점매수에 전 거래일 대비 1.90원 상승한 1,218.7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15.5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이후 환율은 위험선호분위기에도 저점매수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상단이 제한되며 이후 환율은 1,217 ~ 1,218원대의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1,218.70원에서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17.4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16.13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15.50	1219.30	1214.80	1218.70	1217.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17.95	1121.67	1114.11	1117.8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7	-1.36	-3.16	-7.79
결제환율(수입)	0.16	0.24	-0.55	-2.74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전망

달러약세에도 美 실업률 경계 ... 1,210원 중후반 박스권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유로 강세에 따른 달러약세에도 미 실업지표 부진에 따른 경계심리에 박스권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18.70원) 대비 1.85원 하락한 1,216.7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ECB통화정책회의에서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6천유로로 확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통화당국의 경기부양 의지가 부각되며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자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이며 97 수준을 하회하였다. 이상의 달러약세는 환율에 하락압력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다만, 미국의 실업지표에 대한 경계심리는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청구자수가 시장의 기대보다 부진하였으며 연속 청구자수가 증가한 점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연속 실업보험청구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재고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일 환율은 달러약세 속 실업지표 경계심리를 반영하며 박스권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13.25 ~ 1219.7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58.31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85원 ↓
	■ 美 다우지수 : 26281.82, +11.93p(+0.0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3.7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199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